

# 총리 표창 받은 고려인동포 귀화 불허...주민들 재심 청원

### 2010년 한국 온 전을가씨 '식품법 위반' 기소유에 이력에 '불허' 카페 운영하며 수익 후원·전쟁난민 항공권 구입비 지원 등 선행

10여 년 넘게 지역사회에서 선행을 베풀고 있는 고려인이 특별귀화를 신청했지만, 법무부가 '불허' 결정을 내려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기소유에 처벌 전력이 불허의 이유로 알려졌다. 고의가 아닌 업자에게 속았다는 점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점이 무시됐다. 점에서 광주 고려인 마을 주민들이 재심 청구에 나섰다.

16일 광주시 광산구 월산동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고려인 전을가(여·37·사진)씨는 지난 13일 법무부로부터 '2022년 6월 15일에 신청한 귀화허가 신청이 불허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전씨는 지난 2010년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난과 고려인 차별을 피해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이주했

다.

전씨 가족은 광주 고려인마을에서 거주하며, 농촌과 플라스틱 공장에서 닦치는대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다 지난 2013년께 고려인마을의 도움으로 월곡동에 '리뽀쉬카' (우즈베키스탄 전통 빵) 음식과 기념품을 판매하는 '고려인마을 가족카페'를 열었다.

전씨는 입소문을 타고 카페에 손님들이 몰리며 경제적 여유가 생기자 자신을 받아준 지역사회에 고마움을 돌렸다. 고려인광주진로소 건립 등 고려인마을 발전을 위해 기부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고려인들을 도운 것이다.

수술비가 없어 애타우는 동포들의 긴급 의료비,



전씨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너무나 힘들어 매일 울면서 성공하면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기도한 것이 축복을 일으켰다"며 "당시 마을을 잊지 않고 고려인마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고 당연한 듯 말했다.

정부는 전씨의 이러한 선행에 지난해 5월 국무총

리 표창까지 수여했다. 이에 고려인마을은 수상을 근거로 전 광주시장과 마을 주민의 추천을 받아 지난해 6월 특별귀화(공로가 있는 외국인 대상)를 신청했다. 하지만 정부의 결정은 '불허'였다.

지난 2020년 12월께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기소유에 처분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당시 광주시 월곡동 고려인마을에서 운영하던 '고려인마을 가족카페'에서 정상적으로 제조되지 않은 통조림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전씨는 "한 업자가 자신이 만든 소고기 통조림을 외국에서 수입했다가 속여 우리에게 팔았다"며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고 반품을 요구했지만, 이 업자는 대금 3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도망갔다"고 말했다.

경찰이 해당 업자를 수사하며 전씨도 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로 송치됐는데, 광주지방검찰청이 지난 2020년 12월 정상을 잠착해 기소유에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고려인마을 주민들은 정부가 기소유에 하나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고 수익 원을 기부한 사람의 귀화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에 재심 청원을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성명서를 작성해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조야 광주고려인마을 대표는 "이미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때 범죄 이력 등을 조화하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텐데, 이제 와서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고려인마을에서 이처럼 입지전적인 인물도 귀화할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귀화할 수 있나"고 되물었다.

한편, 현재 광주 고려인마을에 거주하는 고려인 7000여 명 중 귀화시도를 통과한 사람은 지금까지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격요건이 까다롭거나 시험이 너무 어려워 통과가 어렵다는 이유다. 이에 광주 고려인 대부분은 재외동포(F-4) 비자로 3년마다 한번씩 비자를 연장하고 있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 광주·전남 청소년 건강 '빨간불'

### 전남 '비만율' 21.7%·광주 '흡연율' 7% 전국 최고

전남 청소년의 비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광주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전국 최고수준을 보여 지역 청소년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교육부가 14일 발표한 '2022년 학생 건강검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 청소년들의 비만율은 21.7%로 전국 광역시·도에서 가장 높았다.

광주 지역 청소년들의 흡연율과 남학생 음주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비만율 전국 평균은 18.7%이지만, 전남이 3%포인트 높은 수치를 보여 전국 1위였고 인천(21%)과 강원(20.8%)이 뒤를 이었다. 전남은 집계 인원이 비슷한 울산(16.5%)과 인구 광역시인 대전(15.1%)보다도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광주는 현재 흡연율(최근 30일 동안 일반담

배 또는 전자담배를 1일 이상 사용한 사람의 비율)이 7%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남과 전북 각각 6.3%였고 서울과 인천(3.3%), 대구(3.2%) 순이었다. 남학생 현재 흡연율도 광주가 9.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여학생 현재 흡연율은 전남(4.5%), 전북(4.1%), 광주(3.9%) 순으로 호남권이 상위에 기록됐다.

남학생 현재 음주율(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도 광주가 19.6%로 경북(20.5%)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유행 3년차를 맞은 2023년 단계적으로 일상이 회복됨에 따라 흡연과 음주율도 높아졌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침수된 지하철 역사 탈출 체험 16일 광주시 북구 오치동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에서 '호우 안전'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이 침수된 지하철 역사를 빠져나오는 체험 교육을 받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전남도, 공중보건 의사 249명 신규 배치

전남도가 지난 14일 농어촌 취약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공중보건 의사 지킴이인 신규 공중보건 의사 249명을 배치했다.

전남 236개 보건기관에 의과 85명, 치과 50명, 한의과 86명 등에 221명을, 3개 지방의료원에 의과 7명, 병원선과 역학조사관 등 공공의료정책 수행기관에 의과 4명, 치과 2명, 한의과 2명을, 이밖에 지역응급의료기관에 13명을 배치하고 북무하도록 했다.

전남도에 올해 신규로 편입되는 공중보건 의사는 북무만으로 인원 대비 의과는 35명 감소한 반면 치과는 5명, 한의과는 6명이 각각 늘었다.

의과 공중보건 의사 감소 주요 원인은 의학전문 대학원 도입에 따른 군필자와 여학생 비율 증가, 공중보건 의사 복무 기간이 36개월로 장기인 것에 비해 현역병은 18개월로 비교적 짧아 현역병을 선호하는 분위기 등 복합적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남도가 최근 개최한 간담회에서 ▲공보의 복무기간 단계적 단축 ▲삼지역 응급의료 및 야간 근무인력 배치 기준 변경 ▲진료 실적이 저조한 보건지소 통합 운영 및 순회진료 확대 ▲미배치된 보건지소를 건강증진형 보건진료소로 기능 전환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우회전 전용신호등 설치 확대

### 광산구 영광통사거리·북구 중외공원 부근 등 5곳

광주시는 "지난 1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광주경찰청과 함께 우회전 전용신호등을 설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우회전 전용신호등 설치 지역은 광산구 송도리 구 교차로, 광산구 상무대로 영광통사거리, 서구 천변로로 극락초교 부근, 북구 임방울대로 어린이 교통공원 부근, 북구 하서로 중외공원 부근 등 5곳이다.

이들 지점은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충돌 빈번 ▲동일 장소에서 1년간 3건 이상 우회전 차량 사고 발생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거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 확인 등이 어려운 장소다.

우회전 전용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우회전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으며, 광주시는 우회전 전용신호등 효과를 분석해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일반 교차로 우회전 때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 방법에 대해 혼동을 느끼는 운전자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우회전 시 일단멈춤' 표지판을 설치해 안내 체계를 강화하고 운전자 혼선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진혁 광주시 교통정책과장은 "우회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해 교통정책을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5·18 행사 모니터링단 모집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위원회(이하 5·18행사위)가 17일부터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시민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민모니터링단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5·18기념행사에 참가해 행사 기획과 진행 등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모니터링 활동에 따라 활동 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6일까지이며 모집 대상은 청년, 대학생, 시민 등 총 20여명이다.

광주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인터넷 사이트(bit.ly/518모니터링단)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선정된 경우 다음달 2일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단지점, 통광주지점, 각학지점